

## 대순사상의 성·경·신에 대한 종교적 해석

안 유 경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 연구원

- |            |           |
|------------|-----------|
| I. 서론      | IV. 믿음(信) |
| II. 정성(誠)  | V. 결론     |
| III. 공경(敬) |           |

### I. 서론

대순진리는 상계, 즉 증산(甞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가르침을 말한다. 구천상제(증산)께서 인간 세상에 강림하여 천하를 대순하시며 9년간의 대공사를 설정함으로써 수 천 년간 쌓인 원한을 해소하여 새로운 후천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sup>1)</sup> 구천상제가 9년간 이룩해 놓은 천지공사를 이어서 그 유지를 밝힌 분이 도주 조정산(趙鼎山, 1895-1958)이며, 도주의 종통을 이어받아 지금의 대순종단을 이끌었던 분이 도전 박우당(朴牛堂, 1917-1996)

---

1) 『전경』, 권지 1장 11절, “나는 서양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벽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너희 동방을 순회하던 중 이 땅에 머문 것은 곧 참화 중에 묻힌 무명의 약소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 주려함이노라.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

이다. 도주 조정산은 1925년에 무극도(無極道)<sup>2)</sup>를 창도하면서 상제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상제로 봉안하고, 신앙대상·종지·신조 그리고 목적의 교리체계를 확립하였다. 신앙대상은 강세한 강증산을 구천상제로 신앙하는 것이며, 종지는 강증산의 사상을 집약하여 나타낸 것으로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調化)·해원상생(解冤相生)·도통진경(道通眞境)을 말한다.<sup>3)</sup> 신조는 종지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신앙의 방법으로서 안심(安心)·안신(安身)·경천(敬天)·수도(修道)의 사강령과 성(誠)·경(敬)·신(信)의 삼요체가 있으며, 목적은 대순진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경지를 가리키는데, 인간개조(人間改造)와 정신개벽(精神開闢)으로 포덕천하(布德天下)·구제창생(救濟蒼生)·지상천국(地上天國) 건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sup>4)</sup> 이처럼 대순진리는 강세한 강증산이 상제임을 믿는데서 출발하여 종지·신조·목적 등 교리체계를 두루 갖춘 하나의 종교교단으로서 종교적 신앙의 태도에 입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대순진리의 종지의 이념에 해당하는 삼요체인 성·경·신에 대한 이해도 종교적 태도에 입각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삼요체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 혹은 세 가지 중요한 조목이라는 뜻으로<sup>5)</sup>,

2) 대순종단이 처음 창설되었을 때의 이름이 ‘무극도(無極道)’였다. 『대순진리회요람』에서는 “1925년 4월에 전북 구태인 도창현에 도장을 건설하시고 종단 무극도를 창도하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3) 대순사상에서의 음양합덕(陰陽合德)은 상극의 원리가 지배하는 반목과 투쟁의 위기를 모든 구성원이 상생의 원리로 극복하자는 뜻이다. 신인조화(神人調化)는 신과 인간이 하나되는 경지를 말하며, 해원상생(解冤相生)은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하자는 뜻을 이룰 위해 우리도덕의 실천이 강조된다. 도통진경(道通眞境)은 수도를 통해 이상적 경지를 이룩하자는 뜻으로, 정신과 물질의 조화를 이루고 현실과 이상을 합치시키면 진경에 도달한다는 이론이다. (인터넷 자료)

4) 『전경』, 교운 2장 32절, 교리체계의 확립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을축년에 구태인 도창현(舊秦仁道昌峴)에 도장이 이룩되니 이때 도주께서 무극도(無極道)를 창도하시고 상제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하시고 종지(宗旨) 및 신조(信條)와 목적(目的)을 정하셨다. 종지(宗旨):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陰陽合德 神人調化 解冤相生 道通眞境), 신조(信條): 사강령(四綱領)…안심(安心)·안신(安身)·경천(敬天)·수도(修道) 삼요체(三要諦)…성(誠)·경(敬)·신(信), 목적(目的): 무자기(無自欺) 정신개벽(精神開闢) 지상신선실현(地上神仙實現) 인간개조(人間改造) 지상천국건설(地上天國建設) 세계개벽(世界開闢)

도인들이 지녀야 할 모든 종교적 자세를 말한다. 항상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상제를 모시며(誠), 신명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상제를 공경하며(敬), 강세한 강증산이 상제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信)는 것이다. 대순진리의 최고신인 상제에 대한 이러한 종교적 내용은 『대순지침』<sup>6)</sup>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마음과 몸을 침착(沈着)하고 잠심(潛心)하여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정신을 모아서 단전에 연마하여 영통(靈通)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일념(一念)을 스스로 생각하여 끊임없이 잊지 않고 지성으로 봉축하여야 한다.<sup>7)</sup>

도인들은 성·경·신을 요체로 삼아서 위로 상제님을 받들고 아래로는 사회의 모든 인사(人事)가 상제께서 대순하신 진리대로 이룩되어 가는 진리임을 깊이 믿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up>8)</sup>

성·경·신으로 해원상생을 이루며 생사(生死) 판단도 결정되는 것이다.<sup>9)</sup>

포덕·교화·수도 및 모든 일이 성·경·신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sup>10)</sup>

상제에 대한 생생한 믿음을 근거로 하여 상제에게 정성과 공경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마음과 몸을 다하여 상제를 공경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상제를 봉축하며, 상제께서 대순하신 진리가 반드시 이룩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야말로 모든 원한을 해소할 수 있고 삶과 죽음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원한을 해소한다는 것은 개인 간의 불화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나 자연과의 부조화 등을 의미한다. 개인적인 불화는 서로 화해를 하면 풀릴

5) 최동희, 「기본교리로서의 경(敬)에 대한 이해」, 『대순사상논총』 10 (2000), p.407.

6) 1980년 1월부터 1984년 3월까지 도인들에게 내리신 훈시를 중앙총의회의 요청에 따라, 교무부가 그 요의(要義)를 정리하여 『대순지침(大巡指針)』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대순지침』 훈시대지(訓示大志).

7) 『대순진리회요람』, p.16.

8) 『대순지침』, p.32.

9) 같은 책, p.54.

10) 같은 책, p.54.

수 있겠지만 그 원인이 사회제도나 자연의 부조화에 있을 경우는 신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통 종교에서 어떤 절대자에 대한 신앙은 어떤 절대자에 대한 정성과 공경과 믿음으로 나타나게 마련인데, 대순사상에서의 성·경·신의 의미도 예외일 수 없다.

이처럼 대순사상에서 강조하는 종교적 의미의 성·경·신은 종래의 유학에서 말하는 윤리적 혹은 수양적 의미의 성·경·신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유학에서의 성·경·신은 주로 수양적 개념으로 인격완성을 위한 도덕적 자각, 즉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나<sup>11)</sup>, 대순진리의 기본교리인 성·경·신은 인격완성을 위한 도덕적 자각으로서의 개념을 뛰어넘어 절대자인 상제를 신앙하기 위한 종교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대순사상은 기본적으로 최고신인 상제에 대한 종교적 신앙을 배경으로 한다. 여기서의 상제(정식 호칭은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는 대순진리회 종단의 최고신으로써 인류의 종교적 대역사를 이룩하고자 강세한 인격신인 강증산을 말한다.<sup>12)</sup>

따라서 삼요체로 제시된 성·경·신이 천지에 가득 찬 세계란 바로 상제의 의지가 실현된 지상선경을 의미한다. 인간세상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지고지순한 하늘의 법도만이 적용되며 정신과 물질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지상선경인 것이다. 그 지상선경을 건설하는데 동참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는 성·경·신에 대한 실천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대순지침』에서는 “복록도 성·경·신에 달려있고 수명도 성·경·신에 달려있다”<sup>13)</sup>라고 하였다. 복록과 수명이라는 인간사의 모든 일이 상제에 대한 정성과 공경 그리고 믿음을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

11) 김석한, 「대순진리의 삼요체 연구」, 『대순사상논총』 12 (2001), pp.342-353 참조.

12) 도전님께서 “강세하신 강증산(姜顛山)이 구천상제이심을 분명히 일깨워 주어야 한다”라고 하셨듯이, 단기 4204년[辛未年] 9월 19일(양력 1871년 11월 1일), 전라도(全羅道) 고부군(古阜郡) 우덕면(優德面) 객망리(客望里, 일명 손바래기 마을)에서 인신(人身)으로 강세하신 강증산이 바로 상제님이시다.

13) 『대순지침』, p.38, “복록 성·경·신, 수명 성·경·신이라 하셨으니 복록 수명이 성·경·신에 있느니라.”

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상제에 대한 정성과 공경 그리고 믿음을 다할 때 후천의 모든 복록이나 수명까지도 주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대순사상의 성·경·신은 상제를 모시는데 대한 구체적 인 방법으로써 하나의 종교적 신앙에 입각해 있으며, 이는 절대자인 상제의 강림과 천지공사(天地公事)<sup>14)</sup>의 역사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순사상의 삼요체인 성·경·신을 전통유학에서 강조해왔던 윤리적 의미와는 구별되는 종교적 의미에서 분석을 전개하고자 한다. 대순사상 성·경·신 삼요체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은 연구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삼요체에 해당하는 ‘성’과 ‘경’ 그리고 ‘신’ 각각에 관하여 그 개념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실천적 방안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으며<sup>15)</sup>, 또한 성·경·신 세 개념의 상호관계 속에서 그 종합적 의미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sup>16)</sup> 그러나 대부분의 논문이 유학적 개념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고, 대순사상의 본질인 상제에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 의미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물론 몇몇 논문에서는 성·경·신에 대한 종교적 해석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결론에서는 종교적 의미로 해석을 내리면서도 성·경·신이 갖는 종교적 의미보다는 수도인의 개인적 인격완성에 많은 지분을 할애하였으며<sup>17)</sup>, 또한 정성과 공경을 제외한 믿음의 부분에서

14) 천지공사란 인간으로 강세하신 강증산 상제께서 천지인 삼계대권을 뜻대로 쓰시어 9년 동안(1901-1909) 죽음의 병독에 걸린 목은 천지를 뜯어고쳐 후천 5만년의 새로운 천지질서를 짜신 천대미문의 대성업을 말한다.

15) ‘성’을 주제로 한 논문은 『대순사상논총』 제9집, ‘경’을 주제로 한 논문은 『대순사상논총』 제10집, ‘신’을 주제로 한 논문은 『대순사상논총』 제11집이 있으며, 성·경·신을 종합적으로 다룬 논문으로는 『대순사상논총』 제12집이 있다. 현재 대순사상 학술원에서는 성·경·신과 관련한 논문만도 4권의 단행본을 발간한 상태이다. 이러한 많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순진리의 본질인 상제에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 분석을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16) 성·경·신 세 개념의 상호관계와 함께 그 종합적 의미를 다룬 논문으로는 『대순사상논총』 제12집이 있다.

17) 김정태, 「대순사상의 신조에 대한 이해-성경신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12 (2001).

만 종교적인 해석을 전개하기도 하였다.<sup>18)</sup> 그리고 『전경』 속에 비유되어 있는 많은 설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성·경·신의 종교적 해석을 전개한 논문도 있으나<sup>19)</sup>, 종교적 의미의 내용과 윤리적 의미의 내용을 뒤섞어 열거함으로써 혼동을 야기하여 논문이 지향해야 할 명석함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이러한 몇 가지의 문제점에 근거하여 대순사상의 성·경·신을 종교적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대순진리의 종지의 이념을 달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전경』 속에 나타나 있는 개인의 종교적 체험을 정성과 공경 그리고 믿음이라는 종교적 해석을 위한 논거로 제시함으로써 상제의 초월성을 통한 대순진리의 신앙심을 고취하거나 심화시켜 나가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 II. 정성(誠)

성(誠)의 자원(字源)적인 뜻은 언(言)과 성(成)을 합한데 있다. 즉 말한 바(言)를 반드시 이루도록 (成) 정성을 다한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대순사상에서의 ‘성’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한결같이 상제를 모시는 인간의 마음자세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성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한결같이 상제님을 받드는 일이다.<sup>20)</sup>

이것은 모든 도인들이 지녀야 하는 기본자세이며, 상제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받드는 종교적 신앙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것은 전통유학

18) 김재천, 「삼요체의 실천적 의미 소고」, 『대순사상논총』 12 (2001).

19) 고남식, 「삼요체 성경신에 대한 소고」, 『대순사상논총』 12 (2001).

20) 『대순지침』, p.51.

에서 강조해왔던 ‘성’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어떤 절대적 존재 앞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유한자의 태도를 뜻하는 매우 소박한 종교적 자세라고 할 수 있다.<sup>21)</sup> 전통유학에서는 ‘성’을 인간이 가져야 하는 윤리적 혹은 수양적 덕목으로 규정한다. “정성은 하늘의 도요 정성을 다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sup>22)</sup>라고 하여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하늘의 도에 통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정성을 다하여 자신을 수양하면 인간사에 통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이법에까지 통할 수 있다. 즉 자신에게 정성을 다하면 하늘의 감응을 얻는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유학에서 강조하는 정성은 결국 인간 개개인이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성을 의미한다. 대순사상에서 강조하는 상제인 절대자에 대한 정성과는 구별되지 않을 수 없다.

『대순진리회요람』에서는 ‘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마음은 일신(一身)을 주관하며 전체를 통솔(統率) 이용(利用) 하나니, 그러므로 일신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는 바라.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니 정성이란 늘 끊임이 없이 조밀하고 틈과 쉽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룸이다.<sup>23)</sup>

정성이란 모든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늘 자신의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어떤 상태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라는 바의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주관하는 마음에 틈과 쉽이 없도록 한결같이 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족한 상태에서는 마음대로 상제를 받을 수도 없고, 상제가 이룩한 천지공사에 쓰일 수도 없으며, 또한 수도의 완성을 이룰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항상 열심히 부족함을 메워나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도인들에 있어서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21) 최동희, 『동학의 사상과 운동』 (서울: 성대출판부, 1980), p.95.

22) 『中庸』, 第20章, “誠者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

23) 『대순진리회요람』, p.16

한결같이 상제를 받드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의 경전인 『전경』에서는 상제를 봉행하는데 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상제에 대한 정성을 지극히 할 것을 주문한다.

『전경』에 ‘성을 지극히 하라’ 하셨으니 성의 소귀(所貴)함을 깨달아 봉행하여야 한다.<sup>24)</sup>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감응한다’라고 하였듯이, 대순사상에서는 도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상제에 대해 정성을 지극히 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상제와의 감응이 이루어져 결국은 바라는 바의 소원도 성취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상제가 하는 천지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추존하는 성현들도 정성을 일생의 값진 보배로 삼아 지성으로 진리를 수행한 분들이다.<sup>25)</sup> 이러한 정성된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떤 강요나 협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精)·기(氣)·신(神)이 합일하여 자발적으로 솟아나는 진성(眞誠)의 상태를 말한다.

성은 사람의 정·기·신(精·氣·神)의 합일의 진성(眞誠)이다.<sup>26)</sup>

정(精)은 육신의 중심부로 힘이 모아지는 곳을 말하며, 기(氣)는 사람의 마음인 심기를 의미하며, 신(神)은 바로 정신을 뜻한다. 이처럼 정기신은 생각과 마음과 힘을 다하는 것이 참된 정성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은 이러한 정·기·신으로 인하여 지탱할 수 있다. 물론 정·기·신은 각각의 역할이 있지만 우리의 몸이 한 몸이고 마음이 한마음이듯이 결국 하나로 합일된다. 그 합일된 경지가 바로 진

24) 『대순지침』, p.51

25) 같은 책, p.41. “성현으로 추존받은 옛사람은 성(誠)을 일생 동안 값진 보배로 삼아 지성으로 진리를 수행한 분들이다.”

26) 같은 책, p.51



성(眞誠)의 경지이다.

이러한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진성’의 상태는 바로 인간이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중요한 요체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이 참된 성품을 찾아 정성을 지극히 함으로써 인간이 신과 같아지는 차원이 열리게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정성은 항상 일념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 흐트러짐이 없는 것이며, 그 일념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손해와 이익에 구애됨이 없이 오직 상제만을 추구하며, 이러한 일념의 진실된 행동이 결국 바른 결실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진성이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며, 다다르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대순지침』에서는 “참된 성품을 살피서 허망한 일을 하지 않는(眞實無妄) 지성(至誠)에 이르면 신(神)과 같아진다”<sup>27)</sup>라고 하였다.

이처럼 대순사상에서는 성을 종래의 유학적 개념과는 달리,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는 정성으로 상제를 받드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상제를 받드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개인의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공우의 아내가 물을 길다가 엎어져서 허리와 다리를 다쳐  
기동치 못하고 누워 있거늘 박공우가 매우 근심하다가 상제가  
계신 곳을 향하여 ‘자기의 아내를 도와주십사’하고 지성으로 심  
고하였더니 그의 처가 곧 나아서 일어나느니라.<sup>28)</sup>

상제의 종도인 박공우가 아내의 병에 대해 지극한 정성으로 상제에게 고하였더니 아내의 병이 나았다는 일화이다. 상제에 대한 정성을 지켜내면 병이 낫고 집안의 우환도 없어지게 된다는 말이다.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렇게 행동해서는 안되고 상제께서 항상 우리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신앙하는데 있어서 조금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떡을 찌는 아낙의 예이다.

27) 같은 책, p.75

28) 『진경』, 권지 2장 1절.

… 그 여인은 날마다 머리를 빗고 목욕재계한 뒤에 떡 한 시루씩 찌서 공사 일에 준비하니라. 이렇게 여러 날을 거듭하니 아내가 심히 괴로워하여 불평을 품었도다. 이날 한 짐 나무를 다 때어도 떡이 익지 않아 아내가 매우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노라니 상제께서 주인을 불러 ‘그대 아내는 성심이 풀려서 떡이 익지 않아 매우 걱정하고 있으니 내 앞에 와서 사과하게 하라. 나는 용서하고자 하나 신명들이 듣지 아니하는도다’고 이르시니라. 주인이 아내에게 이 분부를 전하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사랑방에 나와 상제께 사과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시루를 열어보니 떡이 잘 익어 있었도다. 부인은 이로부터 한결같이 정성을 들여 49일을 마치니 상제께서 친히 부엌에 들어가서서 그 정성을 치하하셨다.<sup>29)</sup>

어느 날 상제께서 이선경(李善慶)을 찾아가 그의 아내에게 49일 동안 떡 한 시루씩 찌서 공사의 일을 도울 것을 주문하였다. 그의 아내가 처음에는 머리 빗고 목욕재계하여 떡을 찌는 일에 정성을 다하였으나, 이러한 일을 여러 날 거치면서 정성이 풀어지게 되었다. 하루는 아내가 힘들다고 불평을 하자, 한 짐의 나무를 다 때어도 떡이 익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생겨났다. 뒤늦게 자신의 정성이 풀어져서 떡이 익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상제께 사죄하였다. 다시 아내의 정성이 더해지고 이러한 정성이 신명에 전해지면서 떡은 다시 잘 익게 되었으며 일이 모두 잘 이루어졌다는 일화이다. 상제에 대한 지극한 정성이 시루의 떡을 익게도 하고 익지 않게도 하는 이적(異蹟)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이제 너희들에게 다 각기 운수를 정하였노니 잘 받아 누릴지 어다. 만일 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것은 성심이 없는 까닭이니라.<sup>30)</sup>

29) 같은 책, 행록 1장 29절.

30) 같은 책, 교법 2장 37절.

상제께서는 누구 한 사람에게도 빠짐없이 모두 운수를 정해놓았다. 만일 받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은 성심(誠心)이 없기 때문이요 성심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운수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받지 못한다. 즉 사람들의 운수가 모두 정해졌으니 그 사람이 운수를 받고 못받는 것은 상제에 대한 지극한 정성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지극한 정성을 통해 상제께서 자신에게 정해준 운수를 받아서 누릴 것을 강조한다. 인간사의 모든 일은 그 사람의 정성된 마음에 근원하니,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의 노력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상제에 대한 정성스러운 마음만이 천지의 대운(大運)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종교적 체험은 『전경』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대순사상에서의 ‘성’은 종래의 유교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성격을 달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윤리적 자각에 의한 ‘성’보다는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는 상제의 절대적 권능 앞에 어떤 조화의 능력을 청원하기 위한 소박한 심정의 정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성은 상제에 대한 신앙심을 형성하는 바탕이 된다.

### Ⅲ. 공경(敬)

대순사상에 나타난 ‘경’의 특징은 공경이란 표현을 통해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공경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공손히 하고 존경하는 것’<sup>31)</sup>으로 타인에 대한 예법을 말한다. 『대순지침』에서 말한 ‘경은 예의법절을 갖추어 처신하는 것’<sup>32)</sup>이라는 말과 의미가

31) 동아출판사편집국, 『동아 새국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96), p.207.

32) 『대순지침』, p.52, “경은 예의법절을 갖추어 처신 처세하는 것이다.”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공경의 근원적 의미는 종교적 신앙태도에 기인하는 외경(畏敬)의 심정에서 찾을 수 있다. 유한적 존재자인 인간이 초월적인 신의 권능과 위격 앞에서는 외경의 심정을 지니게 마련이다.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경’의 특징도 인격신인 상제에 대한 공경으로부터 시작되며, 공경의 대상과 주체는 상제에게로 집약되어 나타난다. 상제에 대한 공경은 달리 말하면 사강령의 하나인 경천(敬天)<sup>33)</sup>과도 같은 개념이다. 유학에서의 ‘천’은 자연의 이법적인 개념이지만, 대순사상에서의 ‘천’은 인격적인 상제에 대한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대순사상에 보이는 상제의 위격은 여러 신을 거느리며 인간사회의 제반문제를 제시하고 그 자신의 권능으로서 인간 세상에 강세하여 전체 인류를 위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나가는 최고의 신에 해당된다.<sup>34)</sup> 그러므로 대순사상에서의 ‘경’은 상제에 대한 신앙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순진리회요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행동에 조심하여 상제님 받드는 마음을 자나 깨나 잊지 말고 항상 상제께서 가까이 계심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sup>35)</sup>

‘경’은 공경·경건·외경 등으로 표현되는 단순한 사상사적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제와 신명 앞에서 엄숙한 자세를 취하는 종교적 의미를 부여한다. 상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경건할 줄 알아야 하며, 나아가 항상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신명에 대해 외경하고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상제께서 항상 자신을 굽어 살피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이 상제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존재

33) ‘경천(敬天)’은 하늘을 공경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하늘은 자연현상으로서 나타나는 창천(蒼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법칙을 주관하시는 상제님을 일컫는다. 즉 모든 행동에 조심하여 상제님 받드는 마음을 자나 깨나 잊지 말고, 항상 상제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마음속에 새겨 두고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곧 ‘경천’이다.

34) 이경원, 「한국 근대 천사상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p.128.

35) 『대순진리회요람』, p.15.

라는 것을 자각하고, 자나 깨나 상제의 존재를 잊지 않고[永世不忘] 공경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의 자세로 생활에 임하면 타인에 대해서도 항상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순사상의 종지에서 말한 것처럼 음양합덕(陰陽合德)하고 신인조화(神人調化)하며 해원상생(解冤相生)하고 도통진경(道通眞境)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경’의 의미를 대순사상에서는 지성봉축(至誠奉祝)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성봉축(至誠奉祝)에 변함이 없고 양면이 없어야 경이라 하는 것이다.<sup>36)</sup>

결과 속이 다르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상제에게 공경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여기서 ‘지성봉축’이란 지극한 정성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제님께 기원하는 것을 의미한다.<sup>37)</sup> 따라서 대순사상에서 강조하는 ‘경’의 의미는 몸과 마음을 일치시켜 상제에게 공경을 다하여 상제를 지극히 신앙하는 지성봉축과 그 의미가 부합한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영원히 수명과 복록을 누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경은 대순사상에서 대월영시(對越永侍)의 특징으로 이어진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먹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옳은 일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바로 행하지 못한다(有其心 則有之 無其心 則無之)’ 하였으니, 도인들은 대월상제(對越上帝)의 영시(永侍)의 정신을 권권복옹(拳拳服膺)하여야 한다.<sup>38)</sup>

대순사상에서는 상제를 항상 마주 대하고 있는 마음가짐을 영원히 잊지 않는 태도를 간직할 것을 견지하고, 이러한 태도를 항상 견지하

36) 『대순지침』, p.15.

37) 김정태, 「대순사상에 나타난 敬에 관한 이해」, 『대순사상논총』 10 (2000), p.395.

38) 『대순지침』, p.15.

며 잠시도 잊지 않을 것[拳拳服膺]을 강조한다. 항상 상제를 사모하고 우러르는 태도로써 나아가 그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경의 마음은 자연현상을 마음대로 주재하는 상제의 초월적 권능을 지켜보면서 상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외경(畏敬)의 마음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외경의 마음을 자각하거나 느끼지 못하면 인간은 스스로 교만을 자초하여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결국 상제에 대한 외경의 마음을 견지한 뒤라야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외경이 우리나라에 위해서는 상제의 초월적 권능에 대한 개인의 종교적 체험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경』에는 당시의 체험적 일화가 여러 곳에 소개되어 있다.

아래의 글은 김덕찬이 상제를 항상 거만하게 대하다가, 우레와 번개와 같은 자연현상을 임의대로 주재하는 상제의 권능을 보고 천신과 같이 공경하여 받들었다는 일화이다.

김덕찬이 상제를 대함이 항상 거만하나 상제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도리어 덕찬을 우대하시더니 하루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공사를 행하실 때 크게 우레와 번개를 발하니 덕찬이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피하려 하니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네가 죄 없거늘 어찌 두려워하느뇨.’ 덕찬이 더욱 황겁하여 벌벌 떨고 땀을 흘리면서 어찌 할 바를 모르더니 이후에는 상제를 천신과 같이 공경하고 받들었도다.<sup>39)</sup>

상제의 초월적 권능을 체험하면서 상제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지니게 되었으며, 이에 참된 신앙의 태도를 갖추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제의 권능 앞에 인간의 무기력한 존재를 여실히 인정하는 자세가 곧 상제에 대한 공경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상제에 대한 공경은 상제의 권능으로 김명철의 발만 홍수의 피해를 입지 않게 되었다는 일화에도 잘 나타나 있다.

39) 『전경』, 교운 1장 23절.

김명칠(金明七)은 태인 백암리에 사는 중도인데, 산비탈에 땅을 개간하여 거름을 주고 담배를 심어 가꾸었도다. 하루는 번개가 치고 비가 세차게 퍼붓느니라. 비탈진 산전에 거름을 준 후라 역수가 내리면 거름은 물론 발두둑까지 사태가 나는 것이 상례이기에 명칠이 가슴을 치며 ‘내 농사는 이것뿐인데, 이 역수로 버리게 되었으니 어찌 살랴’고 울음을 터뜨렸도다. 상제께서 공황히 여겨 ‘내가 수재를 면케 하리니 근심 걱정하지 말지어다’고 이르시니, 내리던 비가 개는지라. 명칠이 산전에 뛰어 올라가 보니 다른 사람의 밭은 모두 사태가 났으나 자기 밭만은 조금도 피해가 없었도다. 명칠은 새삼스럽게 상제를 공경하는 마음을 게을리 하지 않았느니라.<sup>40)</sup>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대자연의 재해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리던 비를 그치게 하여 수재(水災)를 면하게 하는 상제의 권능은 인간에게 공경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이러한 공경의 마음을 토대로 신앙적 기틀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전경』에는 공경이란 말 대신 경대(敬待)·경복(敬服)·경송(敬頌) 등의 말로 표현된 곳도 있으나<sup>41)</sup>, 공경의 의미와 별 차이가 없다.

안필성(安弼成)이 못자리를 하려고 범씨를 지고 집을 나서려는데 상제를 뵈었도다. 상제께서 ‘쉬었다 술이나 마시고 가라’고 말씀하셨으되 필성이 사양하는지라. ‘못자리를 내기에 바쁜 모양이니 내가 대신 못자리를 부어주리라’ 하시고 지게 위에 있는 씨나락 서너 말을 망개장이 밭에 다 부으셨도다. 그는 아무런 원망도 하지 못하고 앉아서 주시는 술을 마시면서도 근심하였도다. 주모가 들어와서 씨나락은 가지고 온 그릇에 그대로 있는 것을 알리는도다. 필성은 이상히 여겨 바깥에 나가 뿌려서 흩어

40) 같은 책, 권지 2장 16절.

41) 행록 1장 11절, “상제께서 어려서 성품이 원만하시고 관후하시어 남달리 총명하여서 못사람들로부터 경대를 받으셨다.”; 행록 3장 37절, “차경석이 상제의 위대하심에 경복하였다.”; 제생 4절, “상제께서 약재를 쓰지 않고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을 건져주시니 모든 사람들은 그 신력에 경복하였다”; 권지 1장 1절, “유서구가 상제의 예지에 깊이 놀래어 상제를 경송하게 되었다” 등이 있다.

졌던 씨나락이 한 알도 땅에 없고 그대로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전보다 한층 더 상제를 경대하는도다.<sup>42)</sup>

안필성이 못자리를 하려고 벼씨를 지고 집을 나서려는데, ‘술이나 마시며 잠시 쉬었다 가라’는 상제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자리 내려는 바쁜 마음에 사양하였다. 화가 난 상제는 씨나락 서너 말을 텃밭에 모두 부어버렸다. 아무 원망도 못하고 상제가 주시는 술을 마시면서 씨나락을 걱정하였는데, 나중에 밭에 부운 벼씨가 그대로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 전보다 한층 더 상제를 경대하였다는 일화이다.

이러한 상제의 초월성은 혼란한 시대상황 속에서 질곡당하는 당시 민중들에게 희망의 징표가 되었으며, 민중의 곁에서 숨 쉬며 절대성을 발휘하는 상제는 경외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몸소 민중들의 삶 속에 뛰어들어 초월성을 보이고 천하를 구제하는 대업을 이루어나가는 상제의 초월성을 곁에서 지켜보는 종도들의 자연스러운 공경심은 원초적 신앙심의 표현 이외의 것이 아니었다.<sup>43)</sup> 이러한 모습은 『전경』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전통유학의 ‘경’에서는<sup>44)</sup> 부각되지 않았던 초월성을 견지한 절대자에 대한 신앙적 개념이 대순사상의 ‘경’에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전경』, 행록 2장 24절.

43) 고남식, 「삼요체 성경신에 대한 소고」, 『대순사상논총』 12 (2001), p.244.

44) ‘경’은 전통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도덕적 덕목이다. 원시유학의 ‘경’ 개념의 출발은 상제에 대한 외경(畏敬)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면 『서경』에서의 “공경스러우시며 충명하시고 예의바르고 사려가 깊으시다”거나 “왕은 덕을 빨리 공경하소서.” 『시경』에서의 “군자들은 그 몸을 삼가 경건히 해야 한다.” 『역경』에서의 “경으로써 마음을 끈게 하고 의로써 행동을 바르게 한다”는 등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송대 정주(程朱)에 이르면서 ‘경’에 대한 의미는 인격완성을 위한 수양론적 개념으로 정립된다. 이러한 ‘경’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선한 본성을 ‘경’공부를 통해 회복해가는, 즉 인격완성을 위한 개념으로써 대순사상에서 상제인 강증산을 신앙하기 위한 종교적 개념과는 구별된다. 이재호, 「유학의 修養論과 대순진리의 修道論에 관한 고찰」, 『대순사상논총』 12 (2001), p.304 참조.



## IV. 믿음(信)

믿음은 어떠한 가치관·종교·사람·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이다.<sup>45)</sup>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으로 설명되어 있다. 철학·사회·정치 등의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신념(信念)이라 하며, 종교에서는 신앙(信仰)·신심(信心)·신앙심(信仰心)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처럼 믿음(信)에는 우주의 절대자를 믿는 신앙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믿는 신념(信念)이나 상대방을 믿는 신임(信任) 또는 신뢰(信賴)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전통유학에서 강조하는 ‘신’은 오륜(五倫) 혹은 오상(五常)의 하나인 윤리적 덕목을 말한다.<sup>46)</sup> 그러나 대순사상은 기본적으로 최고신인 상제에 대한 종교적 신앙을 배경으로 한다. 삼요체의 하나인 ‘신’도 종교적 믿음이라는 신앙적 의미에서 출발한다. 수도생활에서 삼요체를 실천하는 근원적인 출발이 상제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대순진리요람』에서는 ‘신’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한마음을 정한 바엔 이익과 손해와 사(邪)와 정(正)과 편벽과 의지로서 바꾸어 고치고 변하여 옳기며 어긋나 차이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하나를 둘이라 않고, 셋을 셋이라 않고, 저것을 이것이라 않고, 앞을 뒤라 안하며, 만고를 통하되 사시(四時)와 주야(晝夜)의 어김이 없는 것과 같이 하고, 만겁(萬劫)을 경과하되 산하(山河)와 산악(山岳)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고, 기약이 있어 이르는 것과 같이 하고, 한도가 있어 정한 것과 같이 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정성하고 또 정성하여 기 대한 바의 목적에 도달케 하는 것을 신(信)이라 한다.<sup>47)</sup>

45) 위키사전 참조.

46) ‘오륜’이란 인간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도덕지침으로, 부자유친(父子有親)·군신유의(君臣有義)·부부유별(夫婦有別)·장유유서(長幼有序)·봉우유신(朋友有信)이 있다. ‘오상’이란 사람이 지켜야 기본 덕목으로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이 있는데, 오륜과 함께 유교윤리의 근본을 이룬다.

여기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부동의 마음가짐 내지는 자세를 견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를 둘이라 앓고 셋을 셋이라 앓고’ 등의 구절은 내가 옳다고 인정한 신념에 대해서는 외부의 온갖 유혹이나 비방 등이 있어도 동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단 상제님의 대순(大巡)하신 진리를 믿고 따르기로 했으면, 그 마음에 흔들림이나 변화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 마음은 만고토록 사계절과 밤낮의 어김이 없는 것과 같이 변해서는 안되며,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산과 강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인 것처럼 견고하고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즉 어떤 외부적 난관이나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고수해나가는 의심 없는 굳은 신념을 말한다. 그러므로 대순사상에서는 성·경·신으로 자아대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질 것을 강조한다.<sup>48)</sup>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각이 있어야 한다. “자각이 없으면 확신이 서지 않는다.”<sup>49)</sup> 확신이 없으면 믿음에 대한 근거가 약해지므로 자각은 믿음을 위한 확실한 기반이 된다. 자각을 통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을 부정할 수 있다. 신념에 대한 부정은 자신만을 파탄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상제에 대한 의심 없는 굳은 신념을 전제로 한다.

믿음은 의심없는 굳은 신념인 것이다.<sup>50)</sup>

믿음은 의심을 품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sup>51)</sup>

여기서는 상제에 대한 믿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나 의혹이 있을 수

47) 『대순진리회요람』, p.16.

48) 『대순지침』, p.53. “일관성의 믿음을 사실화하여 삼계삼법(三界三法)의 성·경·신으로 자아대성(自我大成)을 위한 작업이 신(信)인 것이다.”

49) 같은 책, p.53.

50) 같은 책, p.54.

51) 같은 책, p.54.

없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믿음은 백성이 국가를 믿고 부모가 자식을 믿는 것처럼 조금의 의심을 품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순지침』에서는 “백성이 국가를 믿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는다면 난신적자(亂臣賊子)가 되며, 수도자가 믿음이 부실하면 결과적으로 난법난도(亂法亂道)자가 된다”<sup>52)</sup>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의심을 품지 않는 절대적 믿음을 대순사상에서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한 후에 어김없이 내년의 농사를 위해 곡식의 종자를 남겨두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sup>53)</sup> 이것은 땅에 대한 농부의 가식없는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으로써 상제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강조한 말이다. 이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치와 같다. 내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순사상은 상제에 대한 믿음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너희들이 믿음을 나에게 주어야 나의 믿음을 받으리라.<sup>54)</sup>

인간의 상제에 대한 선행적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때의 믿음은 ‘강세하신 강증산이 구천상제임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며, 상제께서 천하를 대순하시고 광구천하(匡救天下: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세상을 구제함)·광제창생(廣濟蒼生: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널리 구제함)으로 지상선경을 건설하고자 인간 세상에 강세하여 전무후무한 진리의 도를 선포하신 것’<sup>55)</sup>에 대한 확실한 자각과 믿음이다. 상제를 신앙하고 그의 천지공사를 믿는 것은 결과로서의 후천세계를 맞이하는 것과 직결된다. 인간이 상제를 믿을 수 있으면 상제께서는 인간에게 일상적인 성공, 무한한 생명과 행복, 더 나아가 선경의 세계를

52) 같은 책, p.53.

53) 『전경』, 교법, 2장 45절, “농가에서 추수한 후에 곡식 종자를 남겨 두나니 이것은 오직 토지를 믿는 연고이니라. 그것이 곧 믿는 길이니라.”

54) 같은 책, 교법, 1장 5절.

55) 『대순지침』, p.17.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믿느냐”라는 다짐과 함께 “내가 없다고 핑계하여 잘 믿지 않는 자는 내가 다 잊으리라”, “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니 잘 믿으라”<sup>56)</sup>라고 하여 상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강조한다.<sup>57)</sup> 그래서 상제를 진실하게 믿어나가는 사람은 하늘도 두려워하게 된다고 역설한다.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하느니라.<sup>58)</sup>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보여주는 단락이다. 남을 믿지 않으면 나에게 대한 신뢰도 생기지 않으며, 상제를 믿지 않으면 상제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상제로부터 무한한 생명과 복록을 받기 원한다면, 상제에 대한 돈독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상제에 대한 당신의 믿음과 그것의 참다운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상제께서는 신도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이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상제께서 일생을 통해 전달하신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

나의 말이 곧 약이라.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위안하기도 하며,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거슬리게도 하며, 말로써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며, 말로써 죄에 걸린 자를 풀어주기도 하니, 이것은 나의 말이 곧 약인 까닭이니라. 충언이 역이로되 이어행(忠言逆耳利於行)이라. 나는 허망한 말을 아니 하나니 내 말을 믿으라.<sup>59)</sup>

56) 『진경』, 교법 2장 2절.

57) 같은 책, 행록 5장 19절, “김자현은 6월 어느 날 상제께서 ‘내가 나를 믿느냐고 다짐하시기에 ‘지성으로 믿사오며 고부화액 때에도 상제를 따랐나이다’고 믿음을 표명하였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장차 어디로 가리니 내가 없다고 핑계하여 잘 믿지 않는 자는 내가 다 잊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자현은 ‘제가 모시고 따라가겠나이다’고 여쭙니, 상제께서 다시 ‘어느 누구도 능히 따르지 못할지니라. 내가 가서 일을 행하고 돌아오리니 그때까지 믿고 기다리라. 만일 나의 그들을 떠나면 죽을지니라’고 이르셨도다.”

58) 같은 책, 교법 2장 7절.

59) 같은 책, 교법 2장 1절.

대인의 말은 구천에 이르나니 또 나의 말은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니 잘 믿으라.<sup>60)</sup>

상제의 말씀이 믿음의 주요한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믿음의 주요한 대상은 상제뿐만 아니라 상제께서 가르치신 말씀에도 집중된다. 이러한 사실은 대개의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교조(敎祖)의 말씀과 언행이 신앙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교조를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그의 말은 항상 진리이며 신앙의 또 다른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충언역이 이어행(忠言逆耳, 利於行)’은 충언이 귀에는 거슬리게 들리나 행동에는 이롭다는 뜻이다. 좋은 약은 약은 입에는 쓰나 병에는 이롭다(良藥苦口, 利於病)는 뜻과 일맥상통한다. 상제님의 충언을 항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도의 완성을 위해 부단히 전진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믿음의 형식과 내용은 개인의 종교체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보라. 선술을 얻고자 1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그의 성의로 하늘에 올림을 받은 머슴을. 그는 선술을 배우고자 스승을 찾았으되 그 스승은 선술을 가르치기 전에 너의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하니라. 그 머슴이 10년 동안의 진심갈력(盡心竭力)을 다한 농사 끝에야 스승은 머슴을 연못가에 데리고 가서 ‘물 위에 뾰은 버드나무 가지에 올라가서 물 위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선술에 통하리라’고 일러 주었도다. 머슴은 믿고 나뭇가지에 올라 뛰어내리니 뜻밖에도 오색 구름이 모이고 선악이 울리면서 찬란한 보련이 머슴을 태우고 천상으로 올라가니라.<sup>61)</sup>

의심을 품지 않고 생사를 초월한 믿음으로 인해 머슴이 도를 통하게 되었다는 일화이다. 10년 동안 머슴살이에 온갖 어려운 일을 하다

60) 같은 책, 교법 2장 2절.

61) 같은 책, 예시 83절.

가 결국에는 연못에 빠져 목숨까지 잃을 정도로 혹독한 시련을 거쳐서 마침내 도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서 10년간의 머슴살이는 머슴의 성의(誠意)를 알아보는 시험의 기간이라 할 수 있다. 10년간의 머슴살이는 결국 상제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의심 속에서는 결코 완성을 이룰 수 없다. 이처럼 대순진리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개인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앙의 대상인 상제께서 역사하셨던 모든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머슴이 도에 통달할 수 있었던 것도 상제에 대한 믿음, 즉 신앙의 열정이 선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류훈장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최풍헌(崔風憲)이라는 고흥(高興) 사람은 류훈장(柳訓長)의 하인인데 늘 술에 취해 있는 사람과 같이 그 언행이 거칠으나 일 처리에 남보다 뛰어난지라 훈장은 속으로 그 일꾼을 아꼈도다. 훈장은 왜군이 침입한다는 소문에 민심이 흉악해지는 터에 피난할 길을 그에게 부탁하였으되 풍헌은 수차 거절하다가 주인의 성의에 이기지 못하여 ‘가산을 팔아서 나에게 맡길 수 있나 이까’하고 물었느니라. 류훈장이 기꺼이 응낙하고 가산을 팔아서 그에게 맡겼도다. 풍헌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술을 마시며 방탕 ... 최풍헌이 죽었다는 부고를 받고 ... 류훈장은 풍헌을 크게 믿었던 터이므로 ... 사흘이 지나 모두들 운상하여 지리산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산상에서 ‘상여를 버리고 이곳으로 빨리 오르라’는 소리가 들리는지라. 모두 그쪽을 바라보니 최풍헌이라. 모두들 반겨 쫓아 올라가니 그곳의 집 한 채에 풍부한 식량이 마련되어 있느니라. 다시 최풍헌을 따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가리키는 대로 내려다보니 사방이 불바다를 이루고 있는지라. 그 까닭을 물으니 그는 왜병이 침입하여 마을마다 불을 지른 것이라 이르도다.<sup>62)</sup>

결국 류훈장의 선행적 믿음과 실천으로 난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일화이다. 물론 류훈장의 일화는 상제에 대한 조건없는 믿음을 강조한

62) 같은 책, 교법 3장.

비유로 이해할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신앙의 근본임을 전제하는 말이다. 이러한 종교적 체험은 『전경』의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병옥(孫秉旭)은 고부 사람인데 상제를 지성껏 모셨으나 그의 아내는 상제의 왕래를 불쾌히 여기고 남편의 믿음을 방해하였도다. 어느 날 병옥의 아내가 골절이 썩시고 입맛을 잃어 식음을 전폐하여 사경에 헤매게 되었느니라. 공우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상제께 아뢰면 고쳐 주시리라고 믿었도다. … 상제께서 병옥에게 돈 서돈을 청하시기에 그가 올리니 그것을 공우에게 간수하게 하시고 또 두 냇을 병옥으로부터 받아서 다시 그에게 그것을 갈무리하게 하신 후에 병옥의 아내를 불러 앞에 앉히고 ‘왜 그리하였느냐’고 세 번 되풀이 꾸짖고 외면하시면서 ‘죽을 다른 사람에게 가라’고 혼자 말씀을 하시니라. … 가시는 도중에 공우에게 ‘사나이가 잘 되려고 하는데 아내가 방해하니 제 연분이 아니라. 신명들이 없애려는 것을 구하여 주었노라. 이제 병은 나았으나 이 뒤로 잉태는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과연 그 후부터 그 아내는 잉태하지 못하였도다.<sup>63)</sup>

종교인에 있어서 믿음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부에 사는 송병옥의 아내는 남편의 믿음을 방해하여 목숨을 잃을 뻔하였다는 일화이다. 남편의 믿음을 아내가 방해함으로써 신명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아내의 목숨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다. 다행히 손병옥의 아내는 손병옥의 상제에 대한 믿음과 박공우의 상제에 대한 믿음 덕택에 목숨을 구하게 되지만 출산을 하지 못하는 불운을 겪게 된다.

이처럼 절대적 존재인 상제에 대한 믿음은 대순사상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요소로 작용한다. 믿음은 모든 종교에서 근간이 되는 것으로 대순사상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견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의혹과 의심을 물리치고 그 대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그

63) 같은 책, 행록 제4장 19, 20절.

들의 삶과 목적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주는 근원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쉽게 그 의지가 약화되고, 그 목적은 영원히 도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전제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으며, 결국 대순종단에서 제시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다.

## V. 결론

이상으로 대순사상의 성·경·신 삼요체를 종교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이것은 전통유학의 도덕적 자각을 통한 인격완성의 성·경·신 개념과는 다른, 절대자 앞에 있는 인간의 신앙적 자세와 관련된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대순사상은 기본적으로 최고신인 상제에 대한 종교적 신앙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므로 삼요체인 성·경·신도 종교적 차원에서의 해석이 필요하다. 항상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상제를 모시며, 신명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상제를 공경하며, 강세한 강증산이 상제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상제를 믿는 것이 ‘신’이며 상제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이 선행되어야 정성과 공경도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성’과 ‘경’이다. 결국 대순사상의 중심은 상제를 모시는데 있으며, 이러한 태도와 방법이 성·경·신이다.

대순사상에서의 ‘성’은 상제를 모시는 인간의 마음자세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즉 모든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끊임없이 조밀하고 틈과 숨이 없이 늘 자신의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어떤 상태를 가리킨다. 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한결같이 상제님을 받드는 일이 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 강조하는 ‘성’은 어떤 윤리적 자각에 의한 ‘성’보다는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는 상제의 절



대적 권능 앞에 어떤 조화의 능력을 청원하기 위한 소박한 심정의 정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성은 상제에 대한 신앙심을 형성하는 바탕이 된다.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경’의 특징도 인격신인 상제에 대한 공경으로 부터 시작되며, 공경의 대상과 주체는 상제에게로 집약되어 나타난다. ‘경’은 공경·경건·외경 등으로 표현되는 단순한 사상사적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상제와 신명 앞에서 엄숙한 자세를 취하는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상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월영시(對越永侍)의 마음으로 그 앞에서 외경하고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자연현상을 마음대로 주재하는 상제의 초월적 권능을 지켜보면서 상제가 나타내는 권능에 자연스러운 공경의 마음이 일어나고, 이러한 공경심을 토대로 신앙적 기틀이 형성된다.

‘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부동의 마음가짐 내지 자세를 말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견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의혹과 의심을 물리치고 그 대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삶과 목적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주는 근원적인 토대가 된다. 또한 믿음의 특성은 자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며, 믿음의 주요한 대상은 상제와 상제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집중된다. 믿음의 결과는 자아대성(自我大成)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믿음은 대순사상에서 신앙의 근본이 되는 요소로 작용한다. 아무리 정성이 지극하고 공경이 지극하더라도 믿음이 부실하면 허사이다. 믿음이 정성과 공경에 비해 가지는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믿음은 정성과 공경의 바탕이 되어 그 것이 기대하는 바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에 해당된다.

이처럼 종교적 성·경·신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윤리적 성·경·신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제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과 정성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도덕적 덕목이

생명을 얻게 된다. 결국 삼요체인 성·경·신에 대한 종교적 태도가 대순사상 종지의 이념을 구현해나가는 실천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신을 요체로 삼아서 위로 상제님을 받들고 아래로는 사회의 모든 인사(人事)가 상제께서 대순하신 진리대로 이룩되어 가는 진리임을 깊이 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up>64)</sup>라는 구절에서도 확인 될 수 있다.

---

64) 『대순지침』, p.32.

##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 교무부, 『典經』,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74.
- 대순진리회 교무부, 『大巡指針』,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 대순진리회 교무부, 『大巡眞理會要覽』,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69.
- 『中庸』, 『大學』, 『論語』, 『孟子』, 『詩經』, 『書經』, 『周易』
- 강영계 편저, 『종교와 인간의 삶』,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9.
- 고남식, 「선천 천관과 상제의 초월성」, 『대순사상논총』 8, 1999.
- \_\_\_\_\_, 「상제 초월성에 대한 畏敬心の 양상」, 『대순사상논총』 10, 2000.
- \_\_\_\_\_, 「삼요체 성경신에 대한 소고」, 『대순사상논총』 12, 2001.
- 김석한, 「대순진리의 삼요체 연구」, 『대순사상논총』 12, 2001.
- 김수청, 「敬사상연구」, 『퇴계학논총』 4, 1998.
- 김승혜, 「유가적 인간상과 구약적 인간상」, 『동아문화』 19, 1981.
- 김재천, 「삼요체의 실천적 의미 소고」, 『대순사상논총』 12, 2001.
-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대순사상의 현대적 이해』,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8.
- 대순중학교재연구회, 『대순사상의 이해』, 포천: 대진대학교 출판부, 1998.
- 배종호, 「성경의 문제」, 『퇴계학보』 42, 1984.
- 박이문, 『종교란 무엇인가』, 서울: 일조각, 1989.
- 서경수 외, 『종교와 윤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엄영봉, 「先秦인성론의 역사관」, 『유교사상연구』 3, 1988.
- 유명중, 「고대 중국의 상제와 천」, 『철학연구』 25, 1978.
- 유승중, 「誠의 종교적 의미」, 『대순사상논총』 9, 2000.
- 유철로, 「유교에 있어서의 종교성 문제」, 『유학연구』 3, 1995.
- 윤기봉, 「종교수도론 안에서의 삼요체의 의미구조」, 『대순사상논총』 9, 2000.
- \_\_\_\_\_, 「삼요체 안에서의 지행의 문제」, 『대순사상논총』 12, 2001.
- 윤재근, 「대순진리회와 인존사상」, 『종교교육학연구』 2, 1996.
- 이경원, 「한국 근대 天사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 이길용, 「수양론으로 본 한국 신종교의 구조적 특징-동학과 증산교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25, 2012.
- 이재호, 「유학의 수양론과 대순진리의 수도론에 관한 고찰」, 『대순사상논총』 12, 2001.
- 정혜정, 「동학의 성경신 이해와 분석」, 『동학학보』 3, 2002.
- 최동희, 『동학의 사상과 운동』, 서울: 성대출판부, 1980.
- \_\_\_\_\_, 「기본교리로서의 경에 대한 이해」, 『대순사상논총』 10, 2000.
- 최동희 · 이경원, 『대순진리의 신앙과 목적』,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2000.

▪Abstract▪

## The Religious Interpretation of Daesoon Thoughts Sung, Kyoung, Sin

Yoo-Kyoung An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paper analysis Daesoon thoughts of three essence Sung, Kyoung, Sin in the traditional confucianism emphasis in the distinct ethical implications of religious meaning. Daesoon thoughts basically background on the supreme god sangje of religious faith. Here's sangje is as Daesoonjinrihoe religious order of the supreme god, to achieve the human religious daeyeoksa come world ingyeoksin which means gangjeungsan. Thus, Daesunjinri start come world gangjeungsan which is believe sangje, as Tenet. Faith and purpose degree all around having religious denomination, see based on the attitude of religious faith. So Daesunjinri of tenet doctrine that corresponds to the three essence which is Sung, Kyoung, Sin of understand also need to explanation is based on religious attitude. Three essence is three important truth or meaning of three important clause, to possess all the religious attitude of Christian said. Always said to hearty funeral of hearts (誠), the fear of spirits and honor the Emperor(敬), one strong gangjeungsan do not doubt believed that the Emperor(信) is that.

Thus in the text, Daesoon thoughts of Sung, Kyoung. Sin as by analyzing the religious dimension, Daesunjinri is to achieve the tenet doctrine. Also shown in 『jenkyoung』 views of the individual religious experience and religious devotion and reverence and faith for the analysis of the arguments presented by the Emperor Daesunjinri faith the transcendence of truth inspires faith or deepen naganeunde would like to contribute.

**Key words** : sincerity, respect, belief, three essence, god, gangjeungsan

◎ 투 고 일 : 2013년 8월 31일

◎ 심 사 기 간 : 2013년 10월 16일~29일

◎ 계 재 확 정 일 : 2014년 3월 9일